

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

제 1독서 : 말라 3, 19-20a

제 2독서 : 2데살 3, 7-12

복 음 : 루가 21, 5-19

# 순정이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루가 21, 17-18)

전주교구

## 평신도사도직

### 추

## 협의회 창립 25주년



강론

# 지나침에서 오는 가난



회장 황 의 옥 /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모든 쾌락을 실컷 누리고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내 눈이 원하던 모든 것을 거절치 않고 내 욕심을 억제하지 아니했으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요, 마음에 고통뿐인 걸 체험했노라.’ 하는 솔로몬의 말이 생각이 난다.

요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과 극의 엇갈린 삶을 보면서, 우리는 각자의 분수를 잃고 사는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극도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거리엔 무질서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가진 자들의 과소비, 지나친 교육열, 소유욕,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의 천문학적 수에 달하는 권력형 부정 축재 사건은 나라를 온통 쪽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우리는 화장을 지나치게 하고 차림을 요란하게 하면 아름답다고 보다는 오히려 도깨비 같다고 흔히들 말한다. 지나침이란 결국 자기 자신 속에 참된 자부심과 자신감이 없는데서 나오는 불안감 일 것으로 본다. 우리 주위엔 헛되고 지나친 욕망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후 참담한 심경을 맛본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헛된 일을 하고 나서 허공을 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던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속담이 있다. 과욕과 과잉을 버리자. 지나친 과욕으로 큰 죄를 짓게 된 노씨는 바로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했던 통치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다.

민주주의는 행위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하느님 자녀로서 내 탓은 없고 모두 남의 탓이라고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 번 되돌아 봐야 한다.

교회 건물 세우기에 지나친 힘을 소모하지는 않

는지, 떠들썩한 행사 치르기에 들떠 정작 신앙의 알맹이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말로만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모두 빠져런 자성과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93년도 한국 종교 연합에 나타난 종교 인구는 5천1백만 명으로 실제 인구보다 천만 명 가까이 늘어난 통계로 나왔다. 종교 인구가 이토록 불려져 나온 이유는 종교 이기주의로 교세가 불려져 나온 결과였다고 본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욱 혼탁해져가고 있는 사회를 구원해야 하는 것은 종교라고 요구되어지고 있는 이때, 내 탓은 없고 모두 네 탓이라고만 발뺌하려 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미 선교 3세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 창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신도에게 사도직 사명을 부여했다. 그 어느 시대 보다 한국 평신도들은 하느님 사업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주여, 당신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 생활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서로가 형제 되는 기쁨과 아낌없는 봉사의 덕과 사도직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멘.

## 숲정이 산책



평화의 안식을...



역대 지도신부 축사

# 축히합니다



범석규 신부/특수사목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축하드립니다.

전주교구 사제단들과 한 마음으로 교회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은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전주교구가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몫은 평신도들의 역할입니다. 평신도들은 사제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깊숙이 들어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신도들이 좀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복음 선포에 앞장 서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25살이 되었습니다. 청년기에 들어섰지만 장년기를 향해 걸어간다고 볼 수 있기에 더 힘찬 걸음을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김봉희 신부/전동 성당

25주년을 맞은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축하드립니다.

청년기에 들어신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열심히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

동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자발적인 평신도 활동이 활발해 전국적으로 알아 주었던 평신도사도직협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침체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평신도들이 활발해야 교구가 활발합니다. 더구나 우리 교구는 순교자 정신을 이어받은 교구이기에 순교자 신심을 더 고양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환철 신부/중앙 성당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조직된 지 어언 25년, 은경축을 맞이하여 역대 임원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앞으로 2000년대를 맞아 일할 임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신도사도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기를 축신으로 기원합니다.

평신도들은 단순히 개인의 영성과 구원에 국한된 신앙만이 아니라 각자의 소속교회 안에서 사목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보살펴야 함은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이에 평신도들의 역할을 보다 발전적으로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조직된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이에 준한 연구와 계획을 철저히 하여 실천 방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유장훈 신부/총대리

25주년을 맞이하는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전주교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열심히 생활할 때 성직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 3천년 대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들이 더 열심히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드리면서 사목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대희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집

# 한국 최초의 자치교구 금지 지키는

## ■ 순교 선조들이 일군 우리 교구

지금으로부터 211년 전, 한국 천주교회는 외부 선교사의 도움없이 이 땅의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창설하였다. 같은 시기 전라도 천주교회도 윤지충, 유헌검 등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처럼 한국 천주교회와 전라도 천주교회는 평신도들의 노력에 의해 자리를 잡았다.

한국 천주교회는 100여 년에 걸친 박해를 겪었다. 박해 동안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았을 뿐 아니라, 세속의 온갖 것들을 포기한 채 박해를 피해 사람이 살지 않는 험한 산 속으로 피신하여 신앙생활을 지속하였다. 특히 전라도 지방은 전국의 어느 지방보다 많은 순교자들을 낳았고,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려는 교우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이러한 전라도 천주교회는 한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도들이 살았다.

박해시대 이전부터 뛰어난 신심과 표양을 보여 주었고, 훌륭한 순교자들을 낳은 전라도는 순교자들의 후예들과 박해를 체험한 교우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교회 정신이 건실한 지방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1937년 4월 13일, 전주교구가 한국 최초의 자치교구가 되는 터전이 되었다.

수탈과 압제가 극에 달했던 일제 식민지 시기와 해방 정국의 혼란, 그리고 뒤이어 터진 한국 전쟁은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어 놓았지만, 전주교구 평신도들의 움직임은 오로지 천주를 위한 것이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교회 일에는 물질보다 더한 정성과 희생을 드렸다.

## ■ '사목협의회'로 걸음마 시작한 '평협'

이처럼 오랜 신앙 전통을 간직한 전주교구는 1966년 8월경, 오늘날 본당 사목회에 해당되는 본당운영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1968년 2월 10일 평신도와 사제가 함께 하는 사목협의회를 조직하였다. 독자적으로 교회 조직을 꾸려갈만한 경험도 능력도 모자란 평신도 조직이었지만, 평신도 사도직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성직자들의 협력에 힘입어 드디어 1970년 8월 23일 평신도들이 책임을 지고 꾸려가는 평신도사목협의회를 조직하였다. 비록 지금처럼 각 본당 사목회와 교구 단위 단체들을 바탕으로 한 명실상부한 평협으로서의 위상과 체계를 갖춘 조직은 아니었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명시한 평신도 사도직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게 된 것이다. 200여 년이 넘는 한국 천주교회의 전통과 역사에 비추어 보아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만, 오늘날 평협의 기초를 닦은 것이다.

초기 평협의 활동은 평신도 사도직의 올바른 수행을 위한 의식개발이 주류를 이루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평신도의 사명을 자각하고 행동해 나갔다. 초기 평협 활동에 있어서 평신도 지도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규승 초대회장과 송영선 회장 등의 희생과 봉사, 전국 평협 부회장을 네 번이나 연임한 조성호 회장 등 역대 평협 회장들의 노력은 오늘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주) 한국 삼베 전북총판  
최고급 전통수의/Q마크획득원단제품  
삼베양말/무좀예방,삼베이불  
이경권(안토니오) 임경래(수산나)  
서신동 성당 옆  
☎ 76-9691~2  
호출기 012-682-6631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이해경(글러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 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5년

박대길(벨라도)

날 평협 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제5대 전주교구장이었던 김재덕 주교의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은 물심양면의 격려와 협조, 그리고 때로는 채찍을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평신도 사도직이 올바른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다.

### ■ 교구보 「숲정이」의 산실이 되기도

조직도 의식도 변변찮았던 평협이 자신의 위상을 찾아 나가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과도 같았다. 유신이 선포되어 사회 전반이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던 시기에 시작된 전주교구 후보 「숲정이」는 평신도들의 노력에 의해 1972년 12월 3일 창간되었다. 평협 조성호 회장과 한상갑 사무국장이 주간과 편집을 맡고 김병오 선생이 「요십이」를 맡은 「숲정이」는 암울한 시대를 거쳐 오면서 시대의 징표를 알리는 살아 있는 눈과 귀가 되었다.

1975년 10월 19일,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명칭을 바꾼 평협은 이후 각 본당 사목회를 근간으로 하여 교구 단위 단체들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평협이 되었다. 1975년 이후 전주교구 평협의 발자취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전국 각 교구 평협 중에서 가장 앞서 가는 평협으로, 여타

교구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평협은 순교자 현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1976년부터 시작된 신년 교례회의 주관, 정의구현 활동, 교구 단위 단체의 조직화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평신도사도직의 올바른 자리잡기를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각종 교육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리고 1991년과 1992년에 교구 재무평의회와 건축사문위원회, 그리고 사제평의회 등에 평신도 대표들이 참석하여 한 단계 높아진 평협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가장 앞서 나가는 전주교구 평협의 위상을 말해준다. 또한 각종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선교체험 수기 모집과 책자 발간 등 교회 내적인 일과 환경보전 운동의 일환으로 폐수운전지 수거, 약물 복용의 폐해 등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과 생명존중을 일깨우는 가두 캠페인 등 시대의 흐름을 읽고 행동하는 평협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뿌리 깊은 신앙 유산과 출중한 신심을 잊지 않고 있는 전주교구 평협은 교구 내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 건설을 위해 오늘도 매진하고 있다.

## 요십이 (1159) 김병오



### 한국 가톨릭 전산원 직원 모집

-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졸업증명서·모집부분: S/W개발/운영(개발경력 2년이상)일 반행정/관리(경력 2년이상)·접수처: 중앙우체국 사서함6100 한국 가톨릭전산원·접수마감: 11.30 (목)·문의: (02)464-3214

### 알콜·정신병·치매환자 상담실 개설

- 유형별 "환자관리와 치료" 및 사회 적응에 관한 상담실을 개설 운영중(서신 및 전화 상담환영)
- 문의처: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0336)636-8200 FAX.(0336)636-8196

###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 성소모임

- 주(主)활동: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과 가정 방문 대상자를 돌보는 활동
- 성소모임 및 입회문의: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 요망
- 대상: 고졸(재)이상 남자(만 18세~만 35세) 세례받은 지 3년이상 되신 분
- 연락처: ☎(062)510-3040, 3041

###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 모임

-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 일시: 11월26일 오후 2시
- 장소: 삼량진본원 (0527)52-4241
- 준비물: 신구약 성서

### 성체선교 클리라 수녀회 성소모임

- 주제: 행동 가운데 관상자
- 때: 11월26일(일) 오전 11시
- 장소: 대전 본원
- 문의: (042)527-5514

### 김장 걱정 하세요? 3만원만 쓰세요!

- 정한 날 정한 시간, 덕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 고랭지 배추, 고추 등 양질의 양념과 십자매 품: 배추김치,알타리,파,깍뚜기,동치미
- 주문처: 순창 상당 영농조합 (0674)53-8040~1,52-1004 가톨릭농민회 무실 동산매장 (0652)212-7442, FAX.(0674)53-0414

# 평신도, 우리의 자리 다시 살피야

한 상 갑(바오로)

### □ 독실한 천주교 신자?

중요한 부서의 인사이동이 있으면 으레껏 인물평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인물평 기사에는 지연과 학연을 따지지 말자고 역설을 하면서도,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를 빠트리지 않는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종교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그냥 쓰는 말인지는 몰라도,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는 등의 표현으로 말이다.

은 세상을 시끄럽게 한 '노씨사건'이 터지자 그에 연루된 사람들이 연일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그 가운데 맨 처음 검찰의 소환을 받은 전 청와대 경호실장은 화제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간단한 인물평도 예외없이 소개되었다.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다. - '독실한 천주교 신자' 라는.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매우 착잡한 심경이었다.

우리는 가끔 어떤 교우를 일러 독실한 신자라고 말한다. 우리말 뜻 그대로 '열성스럽고 착실한' 신자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다. 열성스럽고 착실한 신자.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신자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는 정도의 신자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의 뜻(소망)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진리와 정의를 지키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 □ 사목회장 유감

때는 마침 많은 본당에서 신도들의 대표인 사목회장을 뽑는 때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본당회장은 뽑는 게 아니라 본당신부께서 임명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당회장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어찌보면 사제와 수도자 다음가는 자리이니, 신앙적으로 남달라야 하고 본당 살림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앞장 서야 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피하려 들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공의회 이후부터

평신도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고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성을 깨달은 교회는 커다란 변화를 시도했다. 그 하나로 이제는 사목회장을 세우는 일에 신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그래서 어느 본당에서는 전 신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회장을 뽑기도 하고, 대표성 있는 신자들이 뽑는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와 약간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사목회장의 위상에 대한 세속적인 의식이 몰들어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회장이라는 자리를 교회와 신도들의 봉사자로 생각하기 보다는 일반 사회단체의 장(長)으로 여기는 현상이 슬며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자원해서 사목회장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신도들이 많아졌다. 어찌보면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아무리 보아도 실상은 그게 아닌 듯 싶어 걱정이다.

### □ 복받은 우리 교구 평협

우리 교구 평협은 올해로 25주년의 역사를 맞는다. 초창기부터의 역사를 비추어 보건데 참으로 복받은 평협 역사라 하겠다. 그것은 다른 어느 교구보다도 먼저 평신도들의 위상을 세워 주신 교회 어른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구 평협 역사 안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자치교구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김재택 주교님께서 공의회 정신을 교회 안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애쓰셨다. 그 한 모습으로 들어난 것이 바로 우리 교구의 평협 위상이다. 작은 일화 하나지만, 그분이 전국 평협 총재로 계실 때 회의든 연수회든 그분은 꼭 전국 각 교구의 평신도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평신도들은 우리를 부러워했다. 그러한 주교님 모습에서 우리 교구 평협은 더 열심히 일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25주년의 역사, 자랑만은 아니니 겸허히 살피야 하겠다.

교협 자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 박진상 한의원

박진상  
김정연(안젤라)  
전주시 인후동 안골 사거리  
(인후 성당 앞, 전복은행 옆)  
☎ 241-5553, 242-5553

### 동서가구 서부대리점

· 혼수장, 아동장, 개비장  
· 원목, 고전가구, 오크, 공예장  
이건무(요한)  
임성숙(카타리나)  
효자동 서부시장 전복은행 앞  
☎ 222-8384

### 컴퓨터 프라이어 마트

특별 판매 기간  
컴퓨터 · CD · 프로그램  
이건이(프란치스코)  
평화주공 1단지 입구  
☎ (0652) 231-2237

하이패션

### 마드모아젤 전주점 오픈

<구·리모드>  
나경섭(안셀모)  
오정애(젤 마)  
전통백화점 ← 기린오피스텔 중간  
☎ 88-8620



# 교 구 소 식

11월 9일에 선종하신 김반석(베네딕도)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신부님과 수녀님,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 ❖ 천호 피정 안내

- 때 : 11월 23일(목)
- 주제 : 주안에 일치, 형제 안에 일치
- 감사 : 유종환 신부

- 때 : 11월 25~26일
- 주제 : 그리스도인의 참 삶은?
- 감사 : 범석규 신부
- 문의 : 73-6600

### ❖ 재무 평의회

- 때 : 11월 21일(화) 오전10시
- 감사 : 교구청

### ❖ 새 사제 연수

- 때 : 11월 23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교구청

### ❖ 가톨릭 언론인, 방송인회 피정

- 때 : 11월 25~26일 오후2시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 대학생 연합회 정기총회

- 때 : 11월 25일(토) 오후1시
- 장소 : 가톨릭센터

### ❖ 성소후원회 임원단 모임

- 때 : 11월 26일(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 ❖ 혼인강좌

- 때 : 11월 26일(일) 오전9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회비 : 각 10,000원
- 문의 : 85-5098

### ❖ 교도소 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때 : 11월 20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때 : 11월 24일(금) 밤11시
- 장소 : 전동 성당

### ❖ 상설 고백소

- 때 : 매주 화~금요일 오후2시~5시
- 장소 : 전동 성당

### ❖ 본당 여성단체임원 및 단체장 피정

- 때 : 11월 27일(월) 오전9시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정읍지구 청소년 어울마당

- 때 : 11월 26일(일) 오후1시
- 장소 : 정주교 실내체육관
- 대상 : 국6, 중·고등학교생

### ❖ 축! 영명

- 23일(성플레멘스) 윤양호 신부님

## ■ 권합니다 ■

우편통신으로 성서공부를  
- 시청각 통신성서교육부 학생모집 -

### 신구약성서 입문과정(2년)

1. 자격 : 고졸정도의 학력 소유자 (예외 있음, 교과초월)
2. 구비서류 :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사진 2매
3. 원서교부 및 접수 : 95년 12월 ~ 96년 1월 20일
4. 원서접수 마감 : 96년 1월 25일까지
5. 원서대 : 4,000원

\* 입학원서 구입처 : 전국 성바오로서원  
☎ (0652)252-3398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 하수구를 깨끗이 하자 -

하수구로 물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하면, 전문기사를 부르기 전에 이 방법을 써 보라. 하수구에 뜨거운 물을 붓고 세탁용 소다 반 컵을 부으라. 15분이 지난 후, 더운물을 다시 하수구에 부으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탁할 때 소다를 사용해 왔다면, 하수구도 깨끗이 유지되어 왔을 것이다. 천천히 빠지는 하수구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펄펄 끓는 물을 부으라. 반 컵의 베이킹소다, 반 컵의 식초, 1/8컵의 소금을 붓는다. 다음과 같은 쉽고도 빠른 싱크대 세척방법을 사용한다면 이와같이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싱크대 하수구에 일정량의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정기적으로 부으면 하수도가 항상 깨끗하게 된다.

## 기아 자동차

새차 구입, A/S상담, 중고차 상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 상 역(요셉)

☎ (0652)87-6301~6  
호출기 : 015-685-0312

### 최첨단 부엌가구

## ENEX 전북종합전시장

박 영 근(공사가)  
장 정 신(젤 마)

전주시 덕진구청 앞  
☎ 75-0523~4

FAX (0652)75-0524

## 조립식 건축 한국 건설

조립식건물, 일반공사  
경량칸막이 콘테이너  
김 해 선(레이지오)

☎ (0652) 75-0161  
FAX (0652) 71-6301  
휴대폰 011-659-8355

##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컨, 환온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원종삼(발라바) · 원승연(도밍고)

삼화공조 ☎ (0652)251-0190~2  
휴대폰 011-653-2346

혼수일절 · 개량한복 전문

## 군 자 주 단

구 군 자(데레사)

군산시 구 시장내 가동32호  
주 (0654) 42-7982  
야 (0654) 451-6290

## (주)이삭온돌침대「피워스톤」

수백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 EMI)  
박천운(베드로) 임선재(데레사)  
전북대리점

☎ (0652)75-9824, 77-6587  
호출기 012-687-8842  
휴대폰 011-651-7124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 제 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벌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 : 2차헌금 있음)입니다.
1. 제대회 임원 개편 : 회장-정경옥(테오도라) 부회장-서성자(소화테레사) 서기-윤경자(베로니카) 총무-유제간(안나)
  2. 부녀회 임원 개편 : 회장-박향자(프란치스카) 부회장-박은순(율리안나) 이옥희(안젤라) 서기-장정남(유스티나) 총무-김영숙(율리안나) 회계-동미숙(수산나)
  3. 반희장 개편 : 인후 3만 원옥순(첼루르다)→박종원(에노파)
  4. 세실리아회 임원 개편 : 부회장-이봉기(마리오) 수고하시겠습니다.
  5. 가정 방문 안내
    - 21일 : 후 2시-인후 2,3,4반
    - 22일 : 오후 2시-동진 1,2반
    - 23일 : 전 10시-중노 3반, 후 2시-중노 4반
    - 24일 : 전 10시-중노 8반, 후 2시-중노 7,9반
  6. 유아 세례 : 25일 후 3시 \* 사무실에 신청
  7. 연도대회 : 25일 저녁미사 후 \* 팀당 10명 이상(남, 여)으로 연습하셔서 참가해 주십시오)
  8. 모임 : ①대건회, 자비의 모후Cu(오늘, 공식미사 후)  
②제대회(22일 어머니미사 후)  
③천사의 모후Cu(26일, 공식미사 후)
  9. 축! 혼인 : 오늘 12시30분, 신랑-김귀원(프란치스코)군, 신부-최정아(루시아)양, 1시30분, 신랑-이옥수(프란치스코 사베리오)군, 신부-전효숙(마라나)양
  10. 금주 청소년 : 남노 1,3반, 차주 청소년 : 중노 1,2반
- 지난주 봉헌금 : 983,050원 □ 교무금 : 1,481,000원

**\* 복자** 사 제 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1. 오늘은 평신도 주일 : 2차헌금 있습니다. 평신도 강론 : 새벽, 저녁미사-김용식 요한, 공식미사-신일균 아오스딩
  2. 고3 수능시험을 위한 미사 : 오늘 저녁미사
  3. 복자 본당 30주년 및 대림절 맞이 신앙대강연회 : 12월1일 지정환 신부님, 8일 김진소 신부님, 15일 이병호 주교님, 22일 이순성 신부님
  4. 성서 주간 : 26일-12월2일까지
  5. 병자 불성체 : 24일(금) 오후
  6. 유아 세례 : 25일(토) 오후 6시반
  7. 모임 : 빠스카회-오늘 공식미사 후  
M.E. 모임-24일(금) 저녁 7시반  
빈첸시오회-25일(토) 오전 10시
  8. 교무금 미납되신 분은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전례 : 해설-유두석, 독서-최정환 부부  
          봉헌-송명진 가족  
차주 전례 : 해설-허정식, 독서-이상은 부부  
          봉헌-조백환 가족  
성당 청소년 : 11월25일(토) 바나의 별Pr. 자비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625,300원 □ 교무금 : 778,500원  
□ 소룡동 성전 건립헌금 : 299,000원

**\* 상 관** 사 제 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김덕용

- ◎ 11월은 위령성월 : 연명을 위해 기도하며 죽음을 묵상합니다.
- ◎ 오늘은 평신도 주일 : 2차헌금 있습니다.
1. 모임 : ①성가대, 새 영세자 모임-공식미사 후  
②성모회, 자모회-다음주일  
③올뜨레야-25일(토) 성당
  2. 가정 방문 : 22일(수)-윈의암, 게월리  
          23일(목)-마치리, 백암리  
          24일(금)-어두리
  3. 감사 : 성전보수비 봉헌-양봉철(30만원) 김한철(15만원) 유춘근(10만원) 김민석(5만원) 계-60만원, 총계-8백1천1만3천원
  4. 지속적인 성체조배 : 23일(목) 저녁미사 후-24일(금)미사 전까지
  5. 성당 청소년 : 금주-사랑하을 어머니Pr.  
          차주-셋별Pr.
  6. 금주 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이옥동 ②송정자  
          봉헌-남동근 가정
  7. 차주 전례 : 해설-이춘봉, 독서-①남현준 ②이순자  
          봉헌-김담오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328,310원 □ 교무금 : 338,000원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오늘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연도대회 : 11월22일(수) 저녁미사 후 \* 많은 참석바랍니다.
  2. 금주 모임 :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유아방 빈첸시오-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 뜻이 있으신 분은 많은 참여바랍니다.
  3. 마니피캇 성가대 발족(구 청년 성가대) : 매주 일요일 저녁미사 후, 단장-이근석(요한) 지휘-유광호(요셉) 반주-채윤선(라파엘라) 기타-최봉열(베드로)
  4. 중·고 교리교사 성탄연수 : 11월18일(토)~19일(일) 나바위
  5. 성가 연습 : 매주 수요일 후 7시30분, 성당 \* 성가를 배우고 싶으신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나 관심있으신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소록도 방문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7. 축! 혼배 : 11월 26일(일) 전 11시30분  
          신랑-신학현, 신부-강준주(글라라)
  8. 청소년 : 금주-상아탑  
          차주-평화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 1,156,550원 □ 교무금 : 1,096,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 ◎ 11월은 위령성월 : 선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 상설 고백소 설치 : 11월7일부터 매주 화요일~금요일 시간-오후 2시~5시까지(단 3월, 12월 관공시기는 제외)
1. 금주 : ①평신도 주일 2차헌금  
          ②바나의 성모Cu.(후 2시)  
          ③청년회(후 8시)
  2. 성화회 : 20일(후 7시)
  3. 성모회 : 21일(전 11시)
  4. 베엠타회 : 22일(전 11시)
  5. 성지회 : 24일(후 8시)
  6. 차주 : ①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②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7. 고경 전례 안내  
①혼인면담-매주 토요일 오후 4시  
②성체강복 및 조배-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③병자 봉성체-매월 첫 금요일 오후 2시  
④유아 세례-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⑤차량 축복식-홀수달 마지막 주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2,013,660원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삼근

- ◎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 가지 말라”(루가 21,8)(평신도 주일 2차헌금)
1. 오늘은 평신도 주일 : 강론-사목회장, 강상근(미카엘)
  2. 제단체장 면담 : 21일 전 10시, 사제관(96년 사업계획 검토)
  3. 쉬는 교우 방문 : 23일 전 9시, 8구역1-6반
  4. 반미사 : 23일 전 10시 2구역 6반, 박정남(엘리스벳)백
  5. 형제기도회 : 21일 후 8 : 30 8구역 7반, 박성현(요한)백, 904호
  6. 중·고 교리교사 정기총회 : 25일 후 8시
  7. 중·고 학생회 정기총회 : 26일 전 10시
  8. 교도소 사목후원회 미사 : 20일 전 10 : 30 센터 3층
  9. 봉성체 : 14일 전 9시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 접수
  10. 성탄 성가 연습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새 대원 환영
  11. 회의 : 임마누엘,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자모회-24일 전 10시  
          올뜨레야, 봉송회-26일 공식미사 후
  12. 축! 혼인 : 25일 12시 전동성당, 신랑-고재석(아오스딩) 신부-최지연, 주례-범석규 신부님(고광필씨 자녀)
  13. 탈삼미사 : 21일 후 8 : 30  
          서영건(토마스)모친, 코오롱APT, 6동704호
- 지난주 봉헌금 : 1,349,300원 □ 교무금 : 1,047,000원